

局部義齒學小考

金 仁 哲

서울대학교의 教授로서 마지막 講義는 6月10日 午前 9時의 4學年 臨床補綴時間으로 끝을 맺었다.

入校한지 滿20年 間 잘못 살던곳이었기에 좋은情 미운情 다들었던 곳이다.

其間 局部義齒學의 講義를 擔當하였던 나로서 이 時間은 참으로 感慨無量하였고 喜悲의 雙曲線 이 走馬燈 처럼 스쳐갔고 講義하는 동안은 많은 涙도 흘렸다.

緊張을 하였던 點도 있었었다.

學生들에게 마지막 講義임을 알리자 모두 肅然하여졌다. 이같은 沈默은 退職하는 나에 對하여 自己中心으로 評價하고 生覺들을 하는 模樣이었다. 나는 數年來로 4學年 臨床補綴時間에는 Occlusion에 關한 講座를 新設하여 講義하여 왔다.

咬合學에 對한 觀念은 外國大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劃一的인 咬合理論으로 부터 脫皮하여 各個人에 特有한 咬合을 追究하려는 試圖은 現世紀에서 妥當하며 科學化되어 가는 證據라 하겠다. 齒科補綴學은 勿論이고 齒科矯正學 齒周病學을 工夫하는데 있어 咬合學을 講義하는 것은 우리學生들에게 工夫하는데 新氣風을 造成할수있고 卒業後에도 咬合學에 對한 概念을 想起시키는 것은 좋은 齒科醫師가 될수 있는 捷徑이며 患者에게는 生物學적으로 適應될 수 있는 施術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信念下에 나 自身이 工夫하면서 講義를 始作하였다. 講義內容이 自己專攻分野以外的 것도 許容하여서 어려운 境遇에도 많이 부닥쳤으나 學究的인 우리 學生들은 잘 理解하려 들었다. 이번 學期에도 咬合生理에 對하여 講義를 始作하였다. 어떤時間의 講義內容은 나 自身도 宏壯히 딱딱한 느낌을 주는 理論講義도 있었었다. 教授自身이 지루하고 趣味도 없는 것을 講義하자니 學生들에게 未安한 境遇도 있었었다. 그러나 알고년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課題이고 보니 꼭 해내야 되겠고 내가 하지 않으면 곧 卒業한學生들이 모르고 平生을 지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기를쓰고 講義하였다.

오늘 아침은 며칠前부터 흐리고 비가오려던 날씨가 그대로 繼續되어 오고있다. 講義室도 후덥지근하여 濁한 느낌이 든다. 終講을 宣言하자 손바닥들을 치며 歡呼한다. 그러나 教授로서 마지막 講義임을 宣言하자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急作히 조용 헤지며 視線이나에게로 集中된다. 나는 이 時間에 局部義齒學에 對한

나의 短見을 講義하기로 하였다.

局部義齒學은 齒科補綴學의 一分科이다. 缺損된 齒牙나 組織을 人工裝置物로 補完하여 三大機能을 恢復하는데 意義가 있겠고 반드시 補綴物은 生物學적으로 適應될 수 있어야 되고 精神衛生學적으로 患者에게 滿足感을 주어야 된다.

勿論 齒科補綴의 必要性에 對하여는 客觀的 또는 主觀的인 解釋을 할수있겠다.

客觀的인 思考는 齒牙가 喪失되면 반드시 恢復하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通念인 故로 齒科施術을 받게 된다. 또는 自己自身은 齒牙로 因하여 日常生活에서 別다른 不便을 느끼지 않으며 咀嚼障害나 審美性的인 阻害도 없으나 親知나 周圍사람들의 勸誘에 依하여 齒科에 來院하는 境遇도 많겠다. 그러나 齒科醫師의 主觀的인 思考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반드시 齒牙缺損類에 對하여는 補綴施療을 하여야 되겠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豫防의 目的을 들수있겠다. 即 齒牙나 이의 周圍組織 神經筋系 顎關節에 繼發的으로 올수 있는 咬合病(N. Guicht)을 補綴施術에 依하여 豫防할 수 있다.

또는 Applegate나 Brill이 主張하듯이 義齒床에서의 間隔的인 咀嚼壓의 傳達은 床下粘膜에 對하여 Massage의 役割이 되며 粘膜은 健康을 維持할수 있고 나아가서는 齒槽突起의 吸收도 豫防할 수 있다.

이와같은 理論은 殘存齒牙에서도 適正한 機能壓이 加해될 境遇에는 同一하다.

또는 神經筋이나 顎關節의 健康도 適正한 咬合關係를 恢復시킴으로 維持될수 있겠다.

둘째로 治療의 目的이 있겠다. 喪失된 齒牙의 對合類에 位置하는 齒牙의 退行性變化를 治療할 수 있고 局部義齒는 咬合의 높이나 顔面高徑을 調整할 수 있다. 이 렇므로 顎關節의 障害Bruxism, 筋亢進(Muscle tonus)를 治療할 수도 있다.

또는 Oral rehabilitation (oral reconstruction)의 前段階治療裝置로서 局部義齒가 利用된다. 齒牙의 小移動(Minor movement)時에 矯正裝置物도 局部義齒에 屬한다.

셋째로 Immediate(直時), temporaly(暫時), 또는 transitional(移行)denture도 治療用的 局部義齒이다.

永久補綴裝置로 製作하기 以前의 直時 또는 暫時局部 義齒은 下顎位나 齒牙位置 또는 機能을 正常으로 維持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咬合不整을 豫防하는데 主 効하다.

얼마後에 拔牙할 수 밖에 없는 數個의 殘存齒에 依持 하여 總義齒로 移行되기 直前に 만들어주는 移行義齒은 將次의 總義齒適應을 容易하게 할 수 있는 局部義齒라 할 수 있겠다.

뉘째로는 審美를 恢復시킴으로 社會活動에서 滿足感을 賦與할 수 있겠기에 精神衛生學적으로 크게 容與할 수 있다.

局部義齒患者에 對한 口腔衛生觀念의 鼓吹와 口腔清掃教育은 局部義齒은 勿論이고 이를 支持하는 齒牙나 組織의 健康을 維持하는데 絶對必要的한 것이다. 局部義齒에는 많은 附屬物이 있는 故로 舌運動의 障害은 勿論이고 飲食物殘渣의 沈積을 許容할 수 있는 機會가 많아진다.

특히 plaque 形成과 齒石沈着을 促進시키고 齶蝕을 繼續할 수 있다. 그러므로 局部義齒을 装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보다는 細密한 Brushing과 口腔衛生에 對한 啓蒙, 教育은 主要한 課題로 다루워져야 한다.

口腔衛生觀念의 鼓吹와 口腔清掃能力의 判定을 目的으로 永久義齒을 装着하는 前段階로서 暫時義齒(temporally partial denture)을 装着시켜 各種 Brush에 依한 brushing方法의 教育과 效果에 對한 判定을 提示하여 口腔管理能力을 評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期間에 審美性과 咬合設計에 對한 評價를 하여 永久義齒設計에 反映시킬 수도 있겠다. 勿論 이와같은 方法이 非現實的인 것으로 指摘하는 醫師도 있겠으나 우리의 患者知性이 日 益向上되고 있고 醫師에 對한 信賴度가 增加되고 있는 現實이고 보니 우리들 自身이 스스로 實行에 옮길 수 있는 時代가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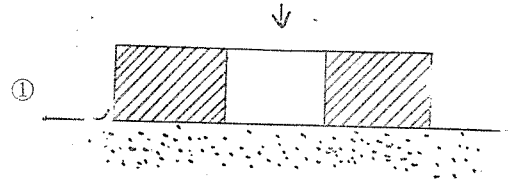
生物學的(Biological) 義齒과 非生物學的(Unbiological)義齒 :

局部義齒은 缺損部位에 따라 Bounded Saddle type. Free-end saddle type. Combination type로 分類할 수 있겠고 機能의으로는 Tooth Supported type Partially tooth Supported type, Bone Supported type 등으로 分類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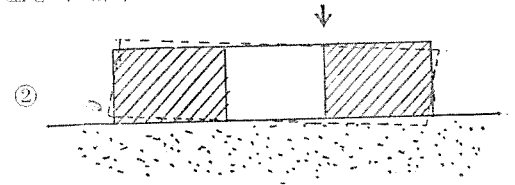
Bounded type는 完全히 Tooth Supported type로서 齒根膜壓負擔義齒로서 生物學的으로 妥當性있는 義齒라 하겠고 Free-end Saddle type은 所謂 True-Partial denture를 뜻하며 Bone Supported type로서 非生物學的이다 義齒에 加해지는 咬合壓은 齒根膜負擔이 正常이고 齒槽堤가 負擔하는 것은 非生物學的으로 生覺한다.

따라서 人工齒排列과 關連시켜서 生覺할때에 Bou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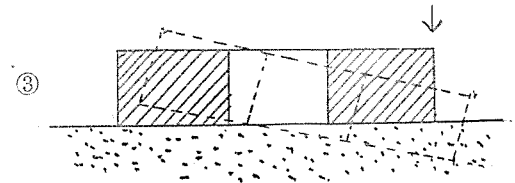
type에서는 別異談가 없이 正常咬合을 시킬 수 있겠으나 Free-end type에서는 Law of Middle third의 原理를 適用시키는 것이 齒槽堤負擔을 均一化시키고 生物學的 義齒로 引導할 수 있는 方法도 되겠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①, ②, ③).



中央1/3部位에 加壓하면 剛體는 彈性體를 均等하게 加壓할 수 있다.



中央1/3에서 떨어진 部位에 加壓하면 加壓 할수록 剛體의 一端에 強하게 負荷된다.



中央1/3에서 끝 部位에 加壓하면 剛體의 一端에 特別 負荷되어 彈性體中에 깊히 沈下된다.

따라서 Free-end Saddle Cases에서 齒槽堤의 中央 部位에 該當되는 人工齒는 正常咬合 시키고 近心과 遠心 爲1/3部位에 人工齒는 크기를 制限시키고 若干咬合을 開咬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局部義齒患者의 再來院指示

Bounded type에서는 機能의인 것 외에 審美的인 것이 問題되겠으나 Free-end Saddle Cases에서는 齒槽堤의 吸收等은 局部義齒의 動搖는 勿論 殘存齒牙의 接觸點喪失 咬合平衡의 破壞 義齒枕下 支臺齒의 不當한 壓力派生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故로 Relining, Rebasings이 必要하다. 一般的으로 義齒装着經過 3個月~6個月間에 반드시 Re call하여 이들에 對한 評價, 診斷, 補修는 齒科 醫師의 其本倫理에 屬하는 問題라 하겠다. 나 한사람쯤 어찌따하는 安逸한 思考는 未久에 全體醫師의 人格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할 수 있겠다는 生覺을 할때에 나個 人的 施術이 또는 位置가 얼마나 重要한것인가를 느껴야 되겠다.